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太宰治의 후기작품에 나타나는 <父>의식연구

- 「父」, 「櫻桃」, 「家庭의幸福」을 중심으로 -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李 修 晶

文學碩士 學位論文

太宰治의 후기작품에 나타나는 <父>의식연구

- 「父」, 「桜桃」, 「家庭の幸福」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李 修 晶

李修晶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8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蓮姬 (印)

委 員 金祥圭 (印)

목 차

*Abstract	ii
I. 서론	1
II. 본론	5
1. 太宰治 후기 작품의 배경	5
1-1. 작품구분.....	5
1-2. 가정환경.....	6
1-3. 패전후 <父>의식의 변화.....	8
1-4. 太宰治에 있어서 <父>의식.....	11
2. 「父」, 「桜桃」, 「家庭の幸福」	17
2-1. 「父」에 보이는 <父>의 정의	17
2-2. 「桜桃」에 보이는 <父>로서의 가치관 혼동.....	27
2-3. 「家庭の幸福」에 나타나는 <父>의 애고이즘.....	36
III. 결론	47
<참고문헌>.....	51

A study of the consciousness of "Father" appearing in the work of the latter period of Dazai Osamu

-Focus on 「Chichi」 「Outou」 「Kateino koufuku」 -

Su Jung Le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en Hee Choi

Abstract

Through analysis of Dazai Osamu's late works, such as 「Chichi」, 「Outou」, 「Kateino koufuku」 I came to see the difference in his view of <Home> from the early or middle ones. More specifically, from the works in his early or middle years, a patriarch gives himself to caring for his <Home> and tries faithfully to perform his role. But, in the postwar's writings, his hero, who has a wife and children, only fails to overcome the obstacle of the reality, even though he has the desire to.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contradictory structure of family to the roles of its members.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ause of the contradiction. So, I tried to consider and uncover the cause of the contradiction by studying 「Chichi」, 「Outou」, 「Kateino koufuku」. That's because all of them intensively hold the contradictory structure in themselves. Japan suffered a big ordeal of the World War II defeat in 1945. Previously, they'd had a number of victories and defeats repetitively in various wars.

During those times, Dazai Osamu', one of the intellectuals obsessed with agony, devoted himself to writing. In the meantime, he wasn't able to join in the army because of pneumonia. It deprived him of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real life, not to simply participate in the wars. Thus, the reason that he couldn't describe <Home> as a contradictory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phases of the times. The portrait of one's weakness and inability is

similar to that of the times when they were defeated in war.

The desire that <I> should escape from the patriarchic system and the anguish that <I> can't help accepting it as an impoverishment for the war defeat comes along with the contradictory structure of home.



I. 서론

다자이오사무(太宰治, 본명은 津島修治, 이하 다자이라 칭함)는 1909년 6월 19일에 青森縣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 지역의 대지주로서 사업 때문에 항상 바빴고, 어머니는 지병을 앓은 탓에 다자이는 유모와 숙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게다가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난 다자이는 많은 형제들 탓에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東京대학 불문과 중퇴를 했으며, 재학 중에는 좌익에 가담했으나 후에 전향했다. 처녀작 『晩年』¹⁾에서 대학시절에 겪었던 좌절감을 엿볼 수 있다. 이후 현실에 대한 부정, 반속정신(反俗精神)으로 일관하며 죄의식의 표명을 유머 속에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몇 번이나 자살 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작품 활동은 왕성했으나 결국 1948년 다마가와 죠스이(玉川上水)에서 투신하면서 작가의 인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성장력을 가진 다자이에게 있어서 가족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에게 가족은 본가의 가족과 결혼 후의 가족(가정) 두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지주 津島家の 열번째 자식(아들로서는 육남)으로 태어나 대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 후자는 다자이를 중심으로 결혼해서 이룬 다자이와 아내, 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의미한다. 결혼 전 서른여명의 대가족인 津島家에서 성장한 다자이였지만,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숙모와 네명의 누나 그리고

1) 昭和11年6月 동인잡지인 『海豹』 창간호와 중앙문예지(中央文芸誌)등에 발표되었던 15편의 소설 작품을 전부 모아서 구성한 第一倉作集이 『晩年』 이고 그안에 「葉」 「思い出」 「魚腹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유모 다케(タケ)로 결속된 구성원 즉, 대가족 속의 소가족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자이는 어머니가 결핵에 걸렸던 탓에 숙모에게 두살 때부터 양육되었다. 낮에는 숙모의 딸들과 지내고, 밤이 되면 숙모와 같이 잠이 드는 모습은 마치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네살이 되면서부터 다케가 유모로 들어와 거의 하루종일 다자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숙모, 다자이, 유모 다케의 기묘한 인간관계는 다자이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런 유년시절 다자이 가족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昭和 14년에 이시하라 미치코(石原美智子)와 결혼하게 됨으로 써 이르게 된 자신의 가정은 결혼전의 평범하지 않은 대가족과는 상반되는 핵가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결혼 후, 세자녀의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자신만의 완성된 가족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본가에서의 가족과 다자이가 결혼하면서부터 구성하게 된 가족은 상이한 가족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그의 생애에 있어 가족은 그 형태나 모습이 상이한 가족관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이점은 그의 작품에서도 독특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초기작품 「思い出」(1933.4)와 중기작품 「新郎」(1942.1)에서는 가정에 대한 애착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津輕에서 상경 후 그는 후기작품인 「ヴィヨンの妻」(1947.3), 「父」(1947.4), 「おさん」(1947.10), 「桜桃」(1948.5), 「家庭の幸福」(1948.8) 등 작품에서 가정이 파괴되어 점차 붕괴되는 가족의 양상을 작품속에서 볼 수 있다.

昭和13년10월24일, 다자이와 이시하라 미치코와 혼약할 쯤 이부세 마스지(井伏鱒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私は、私自身を家庭的の男と思ってゐます。²⁾

2)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新潮社, 1983. 9. 10) p.65

나는 나 자신을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거짓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패전 직후까지의 다자이는 가정적인 남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작품과 실생활을 직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실 생활상에서도 오오타 시즈코(太田静子), 야마자키 토미에이(山崎富栄)와의 교제를 가지는 등 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다자이가 가진 쓰가루에서의 가족관계에 보이는 이중구조 속에서 비롯된 생각의 전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시점에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행동을 동시에 취함으로서 가족속의 이중적 구조가 용납된 유년시절의 연장선상의 양태라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다자이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의미는 대가족 속의 소가족을 이루는 모순적인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중적인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自己の内部にもっとも根強く巣喰っている願望だと確信したから、それだからなおさらこれを『敵』だと目したのです。」³⁾

자기의 내부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은 소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더 이것을 「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룬 전후에 가정을 『敵』라고 묘사하고 지칭 할 만큼 다자이가 작품속에서 <가정>을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있는 심정에 대하여, 오쿠노 타케오(奥野健男)는 다자이의 전후 가정을 『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다자이의 <가정>에 대한 생각을 김영관은 「논리적 결벽

*본문의 원문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3) 奥野健男 『太宰治論』(近代生活社,1956.)p.130

성의 비극」으로 「家庭の幸福」와 「桜桃」를 중심으로 가정의 모순된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략)<가정과괴자의 고통>에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정의 형태와 진리 발견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작품의 흥미 유발이라는 점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주인공의 언행이 작품의 구조와 맞지 않은 점들이(후략)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심리, 행동 묘사가 독자로 하여금 납득시키는 일면이 있으면서도, 반면에 주인공의 언행 전후가 맞지 않는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관 또한 모순된 구조만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자이의 후기 작품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가정>에 대한 모순된 구조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다자이의 유년시절과 결혼 후의 생활에서 빚어진 이중적인 가족의 모습에서만 그 원인을 찾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후기 작품 중 「父」, 「桜桃」, 「家庭の幸福」 속에 나오는 의식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가족의 모순된 구조속에서 보이는 <나>, <아버지>, <남편>이라는 세가지의 <父>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나아가 후기 작품에 보이는 <父>의식과 <가정>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4) 김영관 「다자이오사무 소설의 모순구조 연구 「가정의 행복」과 「앵두」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28권, 한국일어일문학회, 1996.1)p.142

II. 본 론

1. 작품의 배경

1-1. 작품 구분

다자이의 문학 작품은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3기로 구분하고 있다.⁵⁾ 1933년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데뷔해서 첫번째 아내와 헤어지는 1937년까지를 전기, 그 후 재혼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다 1938년부터 津輕로 피신하여 패전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를 중기, 1945년 패전 후부터 1948년 죽음까지를 후기로 나눈다. 그것은 실생활의 큰 변화와 함께 작가적 전개와 작품의 변화에 주목한 구분이다. 전기는 다자이의 작가로서의 활동기간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행한 격동기라 할 수 있고, 중기는 프로 작가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안정된 창작이 이어지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후기는 전후 사회 안에서 반속적인 자세를 보이는 무뢰파(無頼波)⁶⁾의 모습을 말한다.

5) 注3 p.150

6) 신희작파(新戯作派)라고도 불리며 패전직후의 혼란한 세상, 가치의 전환 중에 살며 세상이나 전후적 가치에 대해서 니힐리스틱한 부정의 자세를 강렬하게 나타낸 작가들이 있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퇴조한 1935년(昭和10년)전후 문학적 출발을 했지만, 전쟁 중의 군국주의적 제가치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아나키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으로 나타낸다.

1-2. 가정 환경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자이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의 유년시절과 결혼 후의 가정환경도 배제 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다.

다자이는 生家の 영광과 수치를 자신의 人生과 文學에 공존 병립시킴으로서 평생 황홀고 불안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유년기의 특이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 기이한 母性思慕化의 정신세계 또는 특이한 여성상과 여성관을 그의 작품속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⁷⁾

위와 같이 김성희 또한 다자이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기이한 정신세계는 그의 문학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그의 문학작품속의 <私>는 다자이를 닮아있는 것이다.

私は田舎のいわゆる金持ちと云われる家に生まれました。たくさんの兄や姉はありまして、その末っ子として、まず何不自由なく育ちました。その為に世間知らずの非常なはにかみやになって終いました。この私のはにかみが何か他人からみると自分がそれを誇っているように見られやしないかと気にしています。

(「わが半生を語る」 『全集 第10巻』 p.387)

나는 시골의 말하자면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형과 누나가 있고 그 막내로서 우선 무엇 하나 부자유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심한 부끄럼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의 부끄러움이 뭔가 타인으로부터 보면 자신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7) 김성희 「太宰治의 女性觀」(『일어일문학』, 第14輯, 대한일어일문학회 2000.11)p.13

이렇듯, 다자이가 태어났을 무렵 津島家は 번영했을 시기였다. 그러나 생가가 대지주라는 점은 처음부터 다자이에게 많을 것을 느끼게 했다. 津島가 원래부터 명문가는 아니었으나, 부친은 고액납세에 의한 県議員과 衆議員을 거쳐 貴族院議員까지 지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명문가였다. 그러나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것이 다자이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다. 그리고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빴고 어머니는 병약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더러 숙모와 유모의 손에 의해 키워졌다. 더군다나 11남매중 10번째 자식으로 태어나 충분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우한 성장기에 대한 영향은 다자이의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私の母は病身だったので、私は母の乳は一滴も飲まず、生れるとすぐ乳母に抱かれ、三つになつてふらふら立つて歩けるやうになつた頃、乳母にわかれて、乳母の代りに子守としてやとはれたのがたけである。私は夜は叔母に抱かれて寝たが、その他はいつも、たけと一緒に暮らしたのである。三つから八つまで、私はたけに教育された。或る朝、ふと眼をさまして、たけを呼んだが、たけは来ない。はつと思つた。何か、直感で察したので。私は大声挙げて泣いた。たけゐない、たけゐない、と断腸の思ひで泣いて、それから二、三日、私はしやく上げてばかりゐた。その折の苦しさを忘れてはゐない。

(「津軽」『全集 第7巻』 p.162)

나의 어머니는 병약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젖은 한 방울도 먹지 않고, 태어나자 곧 유모에 안겨 세 살이 되어서 비틀비틀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유모와 헤어지고 그 유모 대신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것이 다케이다. 나는 밤에 숙모에 안겨 잤지만, 그 밖에는 언제나 다케와 함께 생활 했던 것이다. 세 살부터 여덟 살 까지 나는 다케에게 교육을 받았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잠에서 깨어나 다케를 불렀지만 다케는 오지 않았다. 깜짝 놀랐다. 뭔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다케가 없어, 다케가

없어, 하고 애끓는 슬픔으로 울었고 그로부터 2,3일 나는 흐느껴 울기만 했다. 지금 까지도 그때의 괴로움을 잊지는 않고 있다.

이 장면은 다자이가 9살 때 실제로 숙모였던 키에의 집으로 유모인 다케가 식모로 가면서 느꼈던 슬픈 감정을 그대로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다.

다자이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주변 인물을 작품속에 자주 등장시키며 이야기 하고 있다. 그중 오오타 시즈코 (太田靜子)란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斜陽』이란 작품속의 주인공 「카즈코」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이와 시즈코의 사이에 태어난 하루코(治子)란 딸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 작가의 가정환경 또는 실생활을 작품과 일치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다자이 작품의 경우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 패전후 <父>의식의 변화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제국주의적 발전의 막을 내리고 미군정하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8월 14일의 어전회의에서 항복을 결정하고 다음날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9월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면서 일본의 패배는 공식화되었다.

일본의 가정은 1945년 패전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천황제와 결부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해체되어 갔으며 이를 대신해 남녀 평등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 서구형 가족제도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패전을 기점으로 아버지가 중심이 되었던 가부장적제도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근대 일본인들에게 많은 의식 변화와 함께 적잖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전후 문학들이 대부분 남성적 권력에서 해방된 여성으로 패전 이후의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가부장제 부권의 예측에서 벗어난 여성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가족공동체를 붕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처럼, 주체적인 여성상이 이에<家>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권의 상실로 인식되고 있다.⁸⁾

유승창은 미국의 사회를 상징하는 『블론디』를 가지고 일본전후 일본사회의 가정을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본 전후 문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본의 가정의 이미지는 주체적인 여성상과 그로 인하여 위기를 맞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대립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패전 후의 주체적인 주부상은 결국 가부장제의 근간을 이루는 현모양처로서의 모성의 붕괴와 부권의 상실을 상징하는 매개로 설정된다. 이는 전후 일본의 이에<家>제도의 붕괴된 시대상을 표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영희는 「일본문학 속에 나타난 家와 아버지」라는 모습으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패전 전 까지 일본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문제가 실재하고 있었다. 봉건적 가족제도가 붕괴된 뒤에도, 그 제도는 가족 안에서 윤리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곳에 대단히 일본 독자적인 <家>의 관념이 붕괴되고 그의 관련된 소위 <가정>의 성립이 특색이

8) 유승창 「전후일본의 가정이미지와 『블론디(Blondie)』」 (『일본어문학』, 제38권,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7) p.221

라고 할 수 있다⁹⁾

이렇듯 일본에서의 가부장제도는 패전 후에 봉건적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武藏野婦人』(新潮文庫版,1953,3),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의 『海辺の光景』(新潮文庫,1959.11),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의 『抱擁家族』(講談社文芸文庫,1965.9)와 같이 <가정>에 관한 작품들이 전후 일본의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그려진다. 이는 전후 일본 사회가 남성적 권력에서 해방된 여성이 중심이 되는 가족의 형태로 패전 이후의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경우 또한, 신구세대의 복잡한 갈등 양상 속에서 그 이미지가 형성되고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가 나오야와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 그리고 타카무라 코타로(高村光太郎)등의 작가들도 아버지와 투쟁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각 ‘家’의 가부장적 가장으로 낙착되고 만다. 이는 일본적인 ‘家’의 특징이 반영된 보기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家>속의 <父>는 가부장제도에서 핵가족화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아직은 보수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아직 탈피 하지 못한 보수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만 다자이에게 있어서의 <父>는 동시대의 작가에게 있어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자이의 「ヴァイオンの妻」이라든가 「父」, 「桜桃」, 「家庭の幸福」의 가정에 나타나는 <父> 모습은 위의 작품들과는 사뭇 다

9) 노영희 「일본문학 속에 나타난 '家 [이해, 집] 와 아버지」 (『동대논총』 제 26권 동덕여자대학, 1996.3) pp.75-92

10) 注9 p.90

르게 표현되고 있다. 다자이의 작품속에서는 그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립하는 <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아닌,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가부장제라는 틀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관습화된 것은 아닌지, 그들이 설 자리를 잃지는 않았는지, 전쟁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린 아버지들이 제대로 가장의 역할은 할 수 있었던가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일본사회의 가족의 모습, 특히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모습은 다자이의 작품 「父」, 「桜桃」, 「家庭の幸福」의 <나>와 닮아 있다. 가부장적인 가장의 모습으로서도 존재하지 못하고,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도 존재하지 못하는 모습은 전후 설 자리를 잃은 가장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다.

1-4. 太宰治에 있어서 <父>의식

다자이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가정>이 소재가 되어 후기까지 이어진다. 초기작품에는 유년시절의 자신의 경험담과 감정을 많이 표현했으며, 현실에서의 재혼과 함께 중기작품에서도 가정의 안정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을 볼 수 있다. 집필이 극히 곤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성향이 가장 안정된 가운데 끊임없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자이에 대해 안도 히로시(安藤宏)는 「세상이 평화로울 때에는 자살을 기도 하고 전란 때에는 건강한 생활을 보낸다는 기묘한 도착이 있다」¹¹⁾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생각해 본다면 다자이에게 있어서 전쟁의 시작과 패전 후의

11) 安藤宏 「太宰治 弱さを演じるということ」(ちくま新書,2002)p.144

의식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42년 1월 『新潮』에 발표된 중기 작품 중 「新郎」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昭和十六年十二月八日之を記せり。この朝、英米と戦端ひらくの報を聞けり。

(「新郎」『全集 第5巻』p.7)

1941년 12월 8일, 이 글을 쓴다. 이날 아침 영미와 전쟁¹²⁾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듣는다.

이렇게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야기도 시작된다. 이 전쟁을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는 징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오는 혼란과는 달리 다자이는 너무나 평화롭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서 삶에 순응하고 있다. 다자이는 신체검사에서 폐질환으로 징용실격을 당하게 된다. 즉, 전쟁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부터 탈락된 것이다. 이 일말의 사건에 대하여 다자이가 언급한 바는 없지만, 초기의 정신병동에서 경험한 인간으로서의 받을 수 없는 처우를 받은 이후 다시 한 번 젊은이로서의 패배의 쓴맛을 보았음을 추측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다자이에게 있어서 전쟁은 남은 자로서의 책임이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비록 본인은 신체검사에서 탈락되었지만 전지로 떠난 친구들을 대신 하여 전쟁으로 인한 침체된 문단

12)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 일본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그때, 일본은 일찍이 조선을 식민지화 한 이래, 중국을 정복하려고 민주에 민주국을 세우며 산동반도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중국을 노린 여러 열강의 반대로 일본은 중국을 포기하고 동남아로 진출, 이때,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저지하려한 나라가 미국이다. 결국 일본이 동남아를 차지하게 되지만 일본은 미국의 방해에 복수하기 위해 1941년 새벽 기습공격으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한다. 이 일로 하와이에 주둔했던 미군의 군사 시설을 초토화 되어 미국이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 전쟁은 막을 내린다.

에서 살아 남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기 작품인 「鷗」(『皮膚と心』,武村書房,昭和15.4)에서 그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私は醜態の男である。なんの指針をも持っていない様子である。私は波の動くがままに、右にゆらり左にゆらり無力に漂う、あの、「群集」の中の一人に過ぎないのではなからうか。そうして私はいま、なんだか、おそろしい速度の列車に乘せられているようだ。この列車は、どこに行くのか、私は知らない。まだ、教えられていないのだ。汽車は走る。轟々の音をたてて走る。(中略)私は呆然と窓外の飛んで飛び去る風景を迎送している。指で窓ガラスに、人の横顔を落書して、やがて拭き消す。日が暮れて、車室の暗い豆電灯が、ぼっと灯る。私は配給のまずしい弁当をひらいて、ぼそぼそたべる。佃煮わびしく、それでも一粒もあまところ無くたべて、九銭のバットを吸う。夜がふけて、寝なければならぬ。私は、寝る。枕の下に、すさまじい車輪疾駆の叫喚。けれども、私は眠らなければならぬ。眼をつぶる。

祖国を愛する情熱、それを持っていない人があろうか。けれども、私には言えないのだ。それを、大きい声で、おくめんも無く語るという業が、できぬのだ。出征の兵隊さんを、人ごみの陰から、こっそり覗いて、ただ、めそめそ泣いていたこともある¹³⁾。

(「鷗」『全集 第3巻』 p.174)

나는 추태한 남자다. 어떠한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물결이 출렁이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거리며 힘없이 밀려가는 저 ‘군중’ 속의 한 무력한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나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열차에 태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 열차인지 나는 모른다. 아직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고 있다. 하지만 기차는 달려간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다. (중략)나는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본다. 손가락으로 옆 사람의 옆얼굴을 유리창에 그렸다가 지워버린다. 날이 저물자 창간의 소형 전등불이 뿌영게 들어 온다. 나는 배급쌀로 만든 도시락을 먹는다. 밥알이 푸석푸석한게 맛있라곤 없지만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먹은 다음 질 나쁜 담배 한 대

13) 밑줄친 부분은 논자에 의한 것임.

를 피워 문다. 밤이 깊다. 나는 잠든다. 베개 밑으로 털커덕 거리며 들리는 기차 바퀴 소리가 시끄럽다. 하지만 자야 한다. 나는 눈을 감는다.

조국을 사랑하는 정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런 정열을 운운할 수가 없다. 이런 정열에 대해 큰 목소리로 녀석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정하는 군인을, 아니 병정들을 환송하느라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몰래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운적도 있다.

이에 관해 작품 「鷗」에서는 사회일원으로서는 탈락되었지만 침체된 문단에서 살아남아 그것이 의무감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전봉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친구들의 무사귀환을 빌며, 나아가서는 독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글을 전달하기 위해 전기와는 다른 보다 밝은 작품을 이뤄낼 수 있었던 큰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이렇듯 중기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父>는, 밝은 모습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살아가는 다자이 본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一日一日の時間が惜しい。私がきょう一日を、出来だけたっぷり生きたい。私は学生たちばかりでなく、世の中の人たち皆に、精いっぱいの正直さで付き合いはじめた。

(「新郎」『全集 第5巻』p.13)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다. 오늘 하루를 최대한 힘껏 살고 싶다. 나는 학생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정직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14) 전봉이 「다자이 오사무 (太宰治) 신랑 (新郎) 론-전쟁과 성서의 의미를 중심으로-」(『일본연구』 제3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9)p.143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 중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父>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この子供は、かならず、丈夫に育つ。私は、それを信じている。なぜだが、そんな気がして、私には心残りが無い。外へ出ても、なるべく早く帰って、晩ごはんは家で食べる事にしている。食卓の上には、何も無い。私には、それが楽しみだ。何も無いのが、楽しみなのだ。しみじみするのだ。家の者は、面目ないような顔をしている。すみません、とおわびを言う。けれども私は、矢鱈におかずを褒めるのだ。おいしい、と言うのだ。家の者は、淋しそうに笑っている。

(「新郎」『全集 第5巻』 pp.7~8)

이 아이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 나에게서 미련이 없다. 밖에 나가더라도 되도록 일찍 집에 돌아와 저녁은 집에서 먹으려고 한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즐겁기만 하다. 절실한 것이다. 집사람은 면목이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미안해요, 라고한다. 하지만 나는 없는 반찬이나마 상에 오른 반찬을 맛있다고 칭찬한다. 집사람은 씩씩하게 웃고 있다.

이렇게 전시중 중기작품에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남편으로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상한 <父>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으로서 들키지 않으려는 <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ああ、このごろ私は毎日、新郎の心で生きている。

(「新郎」『全集 第5巻』 p.18)

아아, 요즘 나는 매일 신랑 마음으로 살고 있다.

「신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새 출발을 암시한다. 신랑의 마음으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다. 생활환경도 달라진다. 묵은 것도 버리고 새것으로 단장을 하고 사는 것이 신랑의 삶이다. 새 삶에 대한 새로운 다짐, 모든 것이 새것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를 주는 것이 바로 <신랑>이라는 단어이다. 이러한 <신랑>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전봉이는 『성서』에 나오는 <신랑>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성서에는 <신랑>의 자세에 대해 나와 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의 구절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하면 슬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아갈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 할 것이니라」를 보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슬퍼할 자는 없다. 이 표현을 기독교의 해석으로 한다면 <신랑>은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면 슬프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¹⁵⁾

다자이가 작품속에서 의도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점점 나약해져 가는 자신을 붙잡으려 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렇게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며 사회와 가정에서 점차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다자이에게는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짐에 의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5) 注14 p.150

2. 「父」, 「桜桃」, 「家庭の幸福」

2-1. 「父」에 보이는 <父>의 정의

이 작품은 1947년 4월 『人間』에 발표된 작품으로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재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다자이는 신앙심의 증거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희생심을 그려내는 일화를 인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듯 자신도 <義>를 위해서 자식과 부인의 희생 따위는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 하고 있다.

義のために、わが子を犠牲にするという事は、人類がはじまって、すぐその直後に起った。信仰の祖といわれているアブラハムが、その信仰の義のために、わが子を殺そうとした事は、旧約の創世記に録されていて有名である。

(「父」『全集 第9巻』p.23)

의를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의 시조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의를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이려 했음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 의를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나>에게 있어서도 <義>에 대한 것은 존재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父はどこかで、義のために遊んでいる。地獄の思いで遊んでいる。いのちを賭

けて遊んでいる。

(「父」『全集 第9巻』p.23)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의를 위해 놀고 있다. 지옥이라 생각하며 놀고 있다. 목숨을 걸고 놀고 있다.

<父>는 <義>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실을 지옥이라 생각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나>에 있어서 <義>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신앙심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려 했다면 이 작품에 있어서 <나>는 자식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父」작품속에는 <義>에 대하여 에피소드와 함께 자신의 <義>를 정당화 하고 있다.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 일까.

다음은 작품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와 소고로의 에피소드를 말하며 자신의 <義>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云々というような事で、イサクはどうやら父に殺されずにすんだのであるが、しかし、アブラハムは、信仰の義者たる事を示んとして躊躇せず、愛する一人息子を殺そうとしたのである。

洋の東西を問わず、また信仰の対象の何たるかを問わず、義の世界は、哀しいものである。

(「父」『全集 第9巻』p.25)

이러한 일로,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간신히 살아난 셈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의인임을 증명해 보려고 주저 하지 않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 신앙의 대상의 이 무엇인가를 불문하고, 의의 세계는, 슬픈 것이다.

<사쿠라 소고로의 에피소드>

佐倉宗吾郎一代記という活動写真を見たのは、私の七つか八つの頃の事であったが、私はその活動写真のうちの、宗吾郎の幽霊が悪代官をくるしめる場所と、それからもう一つ、雪の日の子わかれの場を、いまでも忘れずにいる。

宗吾郎が、いよいよ直訴を決意して、雪の日に旅立つ。わが家の格子窓から、子供らが顔を出して、別れを惜しむ。ととさまえのう、と口々に泣いて父を呼ぶ。宗吾郎は笠で自分の顔を覆うて、渡し舟に乗る。降りしきる雪は、吹雪のようである。七つ八つの私は、それを見て涙を流したのであるが、しかし、それは泣き叫ぶ子供に同情したからではなかった。義のために子供を捨てる宗吾郎のつらさを思って、たまらなくなったからであった。

(「父」『全集 第9巻』p.26)

사쿠라소고로 일대기라는 활동사진을 본것은 내가 일곱, 여덟살때였다. 나는 그 활동사진 중에서 소고로의 유령이 고약한 세금징수관을 괴롭히는 장소와 그것으로부터 하나 더 눈 내리는 날 아이와 이별하는 장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소고랑이, 드디어 직소를 결의하고, 눈오는 날에 여행을 떠난다. 우리 집의 격자창으로부터,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별을 아쉬워한다. 각자 울면서 아버지를 부른다. 소고로는 샷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는, 배를 탄다. 퍼붓는 눈은, 눈보라 같다. 일곱 여덟 살의 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울부짖는 아이에게 동정했기 때문에는 아니었다. 의를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소고로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에서는 신앙심을 위해 아들을 죽이려 했고 소고로의 에피소드에서는 <義>를 위해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작품「父」속의 <父>는 위의 에피소드를 빗대어 억측과도 같이 자신의 말을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다.

「父」 속의 <父>

そして、それ以来、私には、宗吾郎が忘れなくなったのである。自分がこれから生き伸びて行くうちに、必ずあの宗吾郎の子別れの場のような、つらくてかなわない思いをする事が、二度か三度あるに違いないという予感がした。私のこれまでの四十年ちかい生涯に於いて、幸福の予感は、たいていはずれるのが仕来たりになっているけれども、不吉の予感はことごとく当たった。子わかれの場も、二度か三度、どころではなく、この数年間に、ほとんど一日置きくらいに、実にひんばんに演ぜられて来ているのである。＜中略＞午後三時か四時頃、私は仕事に一区切りをつけて立ち上がる。机の引き出しから財布を取り出し、内容をちらと調べて懐にいれ、黙って二重廻しを羽織って、外に出る。外では、子供たちが遊んでいる。その子供たちの中に、私の子もいる。私の子は遊びをやめて、わたしのほうに真正面向いて、私の顔を仰ぎ見る。私も、子の顔を見下す。供に無言である。たまに私は、袂からハンカチを出して、きゅうと子の涙を拭いてやる事もある。そして、さっさと私は歩く。子供のおやつ、子供のおもちゃ、子供の靴、いろいろ買わ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を、一夜のうちに紙屑の如く浪費すべき場所に向かって、さっさと歩く。これがすなわち、私の子わかれの場なのである。出掛けたらさいご、二日も三日も帰らない事がある。

(「父」『全集 第9巻』pp.26,28)

그 뒤로 나는 소고로를 잊기 못하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저 소고로가 자식들과 이별한 것과 같은 쓰라림을 나도 두서너번을 겪게 될 것이라 예감하였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생애에서 행복의 예감은 대부분 빗나갔지만, 불길한 예감은 모조리 적중했다. 자식과 생이별하는 것과 같은 장면은 두서너 번 정도가 아니라 최근 몇 해 동안 거의 하루걸러 보게 되는 것이 되었다.＜중략＞오후 서너시쯤 되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일어선다. 책상 서랍에서 돈지갑을 꺼내 지갑 속을 살짝 들여다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곤 밖으로 나간다. 밖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 아이들 속에 내 아이도 끼여 있다. 아이는 놀다 말고 내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 본다. 나도 아이를 내려다 본다. 서로 말이 없다. 어찌다가 나는 소매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가 흘린 코를 닦아주기도 한다. 그리고는 재빨리 걸어간다. 아이의 간식거리, 아이의 장난감, 아이의 신발 등 여러 가지 사야 할 돈을 하룻밤 사이에 종이조각처럼 써버릴 곳을 찾아 부지런히 걸어간다.

이것이 말하자면 내가 자식과 생이별 하는 장면이 된다. 집을 나갔다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돌아오지 않을때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義>는 신앙심을 위한 아들의 희생이었고, 소고로의 <義>는 정의 실현을 위한 희생이었다. 소고로는 그 옛날 영주가 부당하게 징수하는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촌민들을 구제하고자 당대의 장군에게 영주의 부당한 행위를 직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책형되고 말았다. 이는, <義>를 위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식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소고로의 <義>에 대한 의미는 다르지만 신앙심 또는 정의를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父」속에서 <父>는 소고로의 생이별 장면과 자신이 놀기 위하여 나가는 장면을 오버랩 시키려는 억지와 함께 <義>를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려 한다. 자신의 <義>를 위하여 억측과도 같은 에피소드로 정당화시키며 다자이는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私さえいなかったら、すくなくとも私の周囲の者たちが、平安に、落ちつくようになるのではあるまいか。私はことし既に三十九歳になるのであるが、私のこれまでの文筆に依って得た収入の全部は、私ひとりの遊びのために浪費して来たと言っても、敢えて過言ではないのである。しかも、その遊びというのは、自分にとって、地獄の痛苦しのヤケ酒と、いやなおそろしい鬼女とのつかみ合いの形に似たる浮気であって、私自身、何のたのしいところも無いのである。また、そのような私の遊びの相手になって、私の饗応を受ける知人たちも、ただはらはらすばかりで、少しも楽しくない様子である、

(「父」『全集 第9巻』p.26)

나만 없었다면, 적어도 내 주위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올해 39세가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문필로 벌어들인 수

입은 나 혼자 먹고 마시며 놀기 위해 써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 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의 고통같은 핫술도, 싫고 무서운 악녀 여자들과 옥신각신 하는 형태의 바람으로, 나 자신에게는 그 어떤 재미도 없었다. 또 그런 나의 놀이상대가 되어서, 나를 따르는 지인들도, 단지 조마조마 할 뿐, 조금도 즐겁지 않는 모습이 었다.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 받는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나>는 희생하고 있다. 그 방법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집에도 자주 들어 가 주지 않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옥보다도 싫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과 주변사람이 행복해 진다면 도리를 다 하겠다는 억측과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남들과 같은 소소한 행복으로는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 이상적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마도 패전이 낳은 불안한 의식 속에서의 삶이 전후 다자이가 추구해 오던 삶과는 상이한 현실속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인간성 해방과 습관적 논리는 붕괴한다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현재의 삶이 다자이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다자이의 전후 작품에 고스란히 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품 「父」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実に、べらぼうにお金のかかる大病人である。一族から、このような大病人がひとり出たばかりに、私の身内の者たちは、皆痩せて、一様に少しずつ寿命をちぢめたようだ。死にやいいんだ。つまらんものを書いて、佳作だの何だのと、輕薄におだてられたいばかりに、身内の者の寿命をちぢめるとは、憎みても余りある極悪人ではないか。死ね！ 親がなくても子は育つ、という。私の場合、親が有るから子は育たぬのだ。親が、子供の貯金をさえ使い果たしている始末なのだ。

炉辺の幸福。どうして私には、それが出来ないのだろう。とても、いたたまらない気がするのである。炉辺が、こわくてならぬのである。

(「父」『全集 第9巻』pp.27~28)

실로 몹시도 돈이 드는 큰 병자이다. 일족으로부터 이러한 큰 병자가 한명 나오는 것만으로 나의 가족들은 모두 여위어서 한결같이 조금씩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같다. 죽으면 그만이다. 시시한 것을 써 두고 가족이라는 둥 무엇이라는 둥, 경박하게 치켜세워 받고 있을 뿐이고 가족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는 것은 증오해도 너무 심한 극악인이 아닌가. 죽어라!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란다고 한다. 나의 경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의 저급마저 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화롯가의 행복. 어째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화롯가가, 무서워서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단순한 행복은 견딜 수 없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존립과 가정의 행복이 상충되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정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義>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고는 <義>를 완성 시키지 못한다는 관념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생활자로서 자신의 희생이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어떻게서든 바닥으로 떨어진 권위의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태평양전쟁이 시작하면서 집필했던 「新郎」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를 볼 수 있다.

家の者達にもめっきり優しくなっている。隣室で子供が泣いても、知らぬ振りをしていたものだが、このごろは、立って隣室へ行き器用に抱き上げて軽くゆすぶったりなどする事がある。子供の寝顔を、忘れないように、こっそり見つめている夜もある。見納め、まさか、でも、それに似た気持もあるようだ。この子供は、かならず、丈夫に育つ。私は、それを信じている。なぜだが、そんな気がして、私には心残りが無い。外へ出ても、なるべく早く帰って、晩ごはんは家で食べる事になっている。食卓の上には、何も無い。私には、それが楽しみだ。何も無いのが、楽

しみなのだ。しみじみするのだ。

(「新郎」『全集 第5巻』pp.7~8)

가족들을 따뜻하게 돌봐야만 되겠다. 그 동안엔 옆방에서 아이가 울어도 모르는 체했는데 요즘은 아이가 울면 부리나케 옆방으로 건너가 서투르게나마 아이를 안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해주며 달래본다. 아이의 자는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저녁에 아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도 있다. 설마하니 그럴리아 없겠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아이의 잠든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방정맞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밖에 나가더라도 되도록 일찍 집에 돌아와 저녁은 집에서 먹고 있다. 식탁 위에 반찬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즐겁기만 하다.

이와 같이 중기 작품인 「新郎」와 후기 작품인 「父」의 <父>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新郎」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父」에서는 자신이 희생함으로서 가족의 소중한 행복이라든지 주변사람의 행복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義>에 대하여 「父」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 내리고 있다.

義。義とは？

その解明は出来ないけれども、しかし、アブラハムは、ひとりごを殺さんとし、宗吾郎は子わかれの場を演じ、私は意地になって地獄にはまり込まなければならぬ、その義とは、義とは、ああやりきれない男性の、哀しい弱点に似ている。

(「父」『全集 第9巻』p.37)

의. 의란 무엇인가.

이를 해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독자를 죽이려 했고, 소고로는 자식과 생이별 하려 했고, 나는 오기나 부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려 하는 아아, 그 의란 어떻게든 해볼 방법이 없을 때의 남자의 가없는 약점과도 같은 것이다.

<義>란, 어떻게든 해 볼 방법이 없을 때의 남성의 슬픈 약점을 닮아 있다고 얘기 하고 있다. 이것은 궁지에 내몰린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논리에 동정을 사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자신은 누리고 있는 향응의 시간들을 가정을 버리게 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으로 돌린다. 그러면서도 또 비 정상적인 가장의 모습을 정당화 하고 있다.

원래 <義>란 사회통념상 옳은 일, 또는 인간으로서 정도(正道)를 걷는 일이라고 하며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한문 ‘의(義)’자는 ‘양(羊)’과 ‘아(我)’의 합의문자(合意文字)로, ‘羊’은 훌륭한 가죽옷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나의 몸을 단정히 한 모습이다. 즉 위의(威儀) 바른 모양을 말하며, 위의를 갖추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의’는 ‘인(仁)’과 함께 거론될 때가 많다. ‘인’은 사랑의 마음이라서 부드러운 느낌이나, ‘의’는 이에 비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준다. 공자(孔子)는 인을 매우 강조하였으나 맹자(孟子)는 의의를 함께 다루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여서, 온정주의인 인(仁)만으로써는 모범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애(仁愛)와 함께 의로써 절도 있고 올바른 행위를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했을 것이다. 의는 인간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덕(德)으로서, 《논어(論語)》에는 “의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의는 일종의 형식이기도 하여, 그 형식에 맞추어지면 의(義)의 모습이 된다.

또 사토 이쿠코(佐藤郁子)씨는 <義>의에 대하여 두 작품에서 다자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 하고 있다.

太宰がこの二つの作品のなかで取り扱った義は、義とはなんであるのかというな
いようの問題ではなく、義に対する気構えの問題であった。太宰は、いかに義とい
うものを鮮やかに表現するか、ということにのみ留意したのである。だから太宰がそ

の作品の中で、故意に「花ひらく時節が来なければ、それは、はっきり解明できない」などというのである。16)

다자이가 이 두 개의 작품(「父」와 「桜桃」) 속에서 다루는 의는, 의라는 것이 어째서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의에 대한 마음가짐의 문제였다. 다자이는, 얼마나 의라는 것을 선명하게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유의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자이가 그 작품 안에서, 고의로 「꽃이 피는 시절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명할 수 없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자이에게 있어서 <義>란, 자기 기준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범주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義>라는 명분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식과 생이별을 감수하고 놀러 나온 주인공에게 펼쳐지는 향응의 시간들은 그에게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렇지만 이를 버리려 하진 않는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곳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충분히 <義>를 위해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향응은 가정과 현실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닌 지옥 같은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 <父>는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싶어 하는 평범한 가장이길 바라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현실에 괴로워하며 도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피성이 주인공의 외도로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며,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감에 어찌 할 줄을 모르면서도 가정으로는 도저히 되돌아 갈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자이 스스로가 정해놓은 <義>라는 잣대가 흔들리고 있으며, 현실

16) 佐藤郁子 「『桜桃』・『父』—とくにその「義」について」 (『太宰治の研究』 新生社, 1968)p.160

에 대한 불안과 중압감으로 만들어진 <父>의 모습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패전 후에 생긴 중압감의 배경이 세상이 아닌 <가정>이라는 협소한 곳으로 옮겨 왔을 뿐 주인공이 느끼는 고통은 전쟁 이전의 것과 같은 것으로 띄고 있다. 그리고 또, <父>를 통하여 추구하려던 <義>라는 것은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義> 일 뿐 개인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인 <義> 라고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행동에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려는 변명인 것이다.

즉, 나약해져버린 <父>로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모순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2. 「桜桃」에 보이는 <父>로서의 가치관 혼동

「桜桃」는 1948년 5월1일 발행된 『世界』에 게재된 작품이다. 다자이가 玉川上水에 투신한 것은 같은 해 6월13일로써 죽기 직전에 발표된 최후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子供より親が大事、と思いたい。子供のために、など古風な道学みたいなことを殊勝らしく考えてみても、何、子供よりも、その親のほうが弱いのだ。少とも、私の家庭に於ては、そうである。

(「桜桃」 『全集 第9巻』 p.352)

자식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식을 위해서 라는 고풍스런 도학자 같은 말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봐도, 자식보다는 그 부모가 약하다. 적어도 내 가정에서는 그렇다.

「子供より親が大事」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고풍스러운 도학자와 같이 자식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생활자 <父>로서의 마음은 <親のほうが弱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부분도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은 이 작품에서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親子 관계의식에 관하여 츠루타니 켄조(鶴谷憲三)¹⁷⁾는 여자로서의 妻, 자식 앞에서의 母라는 관계 의식의 및 여성관에 대한 논을 펼친바 있다. 사토 이쿠코(佐藤郁子)¹⁸⁾씨도 「桜桃」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식, 또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桜桃」에서는 모순적 행동과 함께, 모순적 표현이 많이 보여진다. 즉, 이는 <나>의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관계의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私は家庭に在っては、いつも冗談を言っている。それこそ「心には悩みわずらう」事の多いゆえに、「おもてには快樂」をよそわざるを得ない、とでも言おうか。いや、家庭に在る時ばかりでなく、私は人に接する時でも、心がどんなにつらくても、からだが多分な苦しくても、ほとんど必死で、楽しい雰囲気を作る事に努力する。

(「桜桃」『全集 第9巻』p.354)

나는 가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농담을 한다. 그야말로 「마음으로 고민한다」일이 많지만, 「앞에는 쾌락」을 보이려는 심산이었을까. 아니, 가정에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접할 때라도,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몸이 아무리 괴로워도, 거의 필사적으로, 즐거운

17) 鶴谷憲三 「妻・母という<女>-「桜桃」試論-」 (『日本文学研究』 第31卷 梅光学院大学, 1996.1) p.137

18) 注16 p.157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노력한다.

<나>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농담 등으로 집에서 건 밖에서 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마음이 힘들어도 자신만 참으면 모든 상황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힘든 상황을 그렇게 밖에 승화시킬 수 없는 내면적 갈등은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등적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있다. 가정에서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생활자 <父>의 모습은 필사적이다. 그렇게 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일방적이다. 부인이 느끼는 감정은 무시한 채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子供が三人。父は家事には全然、無能である。蒲団さえ自分で上げない。そして、ただもう馬鹿げた冗談ばかり言っている。配給だの、登録だの、そんな事は何も知らない。全然、宿屋住いでもしているような形。来客。饗応。仕事部屋にお弁当を持って出かけて、それっきり一週間も御帰宅にならない事もある。仕事、仕事、といつも騒いでいるけれども、一日に二、三枚くらいしかお出来にならないようである。あとは、酒。飲みすぎると、げっそり痩せてしまって寝込む。そのうえ、あちこちに若い女の友達などもある様子だ。

(「桜桃」『全集 第9巻』p.355)

자식이 세명. 나는 집안일엔 도무지 무능하다. 이불따위 혼자서 개지 않는다. 바보 같은 농담이나 주절대기만 할 뿐이다. 배급이니 등록이니 하는 것들은 도무지 모른다. 여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딱 맞다. 손님들이 제법 찾아 올때도 있다. 집필실 비슷한 방 하나를 집 근처에 따로 물색 해둔게 있어 도시락을 싸들고 그리로 간다고 집을 나간 후 일주일씩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 일해야 한다. 일,일,

하고 소란을 피우지만 하루에 원고지 두서너 장 쓰고는 더 이상 못쓸 때도 허다하다. 그 뒤로는 술이다. 과음하곤 단번에 홀쭉해진 얼굴로 그 자리에 쓰러져 눕는다. 그리고 이리저리 젊은 여자 친구도 있는 모양이다.

이불조차 개지 않는 등 집안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여인숙 생활을 전전하는 무능력한 가장이다. 취하기 일수 이다. 게다가 여기 저기 집필을 핑계로 밖으로 나가서는 젊은 여자 친구도 만나는 듯 하다. 이런 주인공 <나>의 모습은 항상 농담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앞의 말과는 달리,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작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과 가족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서 타인과, 또는 자신을 안도 시키며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즉, 패전후 나약해진 의식을 내색하지 않는 듯 하나 변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하며 기존의 가치관과는 모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지금도 조금만 달라지면 극복할 수 있는 일상의 고통을, <父>는 부딪혀 해결하지 않고, 자신이 못나고 무능하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푸념만을 말한다. 불행의 원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つまり、私は、眞面目で興覚めな、気まずい事に堪え切れないのだ。私は、私の家庭においても、絶えず冗談を言い、薄氷を踏む思いで冗談を言い、一部の読者、批評家の想像を裏切り、私の部屋の畳は新しく、机上是整頓せられ、夫婦はいたわり、尊敬し合い、夫は妻を打った事など無いのは無論、出て行け、出て行きます、などの乱暴な口争いした事さえ一度も無かったし、父も母も負けずに子供を可愛がり、子供たちも父母に陽気によくなつく。しかし、これは外見。母

が胸をあけると、涙の谷、父の寝汗も、いよいよひどく、夫婦は互いに相手の苦痛を知っているのだが、それに、さわらないように努めて、父が冗談を言えば、母も笑う。しかし、その時、涙の谷、と母に言われて父は黙し、何か冗談を言って切りかえそうと思っても、とっさにうまい言葉が浮かばず、黙しつづけると、いよいよ気まずさが積り、さすがの「通人」の父も、とうとう、まじめな顔になってしまって、「誰か、人を雇いなさい。どうしたって、そう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母の機嫌を損じないように、おっかなびっくり、ひとりごとのように呟く。

(「桜桃」『全集 第9巻』p.354)

즉, 나는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는 질색이다. 나는 내 집에서도 항상 농담을 즐겨 하며 항상 집을 말끔히 치워놓고 지낸다. 일부 독자들과 비평가들은 우리 집 다다미장이 더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 다다미는 깨끗하게 깔려 있고, 내 책상은 언제나 정돈되어있으며, 우리 부부는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며 지내며, 나는 아내를 구타하거나 가라고 소리쳐본 일도 없다. 또 우리 부부는 서로 뒤질세라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를 존경하며 따른다. 그러나 이는 외견일 뿐, 아내가 가슴을 열면 거기 가슴 패기는 아이들 치다꺼리하느라 늘 땀으로 젖어 있으며, 눈물의 골짜기로 되어 있고, 나는 날이면 날마다 더욱 식은 땀을 흘린다. 우리 부부는 피차 상대방 고통을 알고 있지만, 애써 덮어가며 내가 살얼음 같은 농담을 하면 아내는 웃는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로 고통을 빗대어 호소했을 때 나는 어떤 농담이든 농담을 하며 얼렁뚱땅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여보, 식모라도 한 사람 씹시다. 당신 힘들어서 안되겠어”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父>는 언쟁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보여지는 모습뿐이라고 한다. 생각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 즉, 여러 가지 변명들로 <父>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아내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던 <父>의 말과

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자신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가정에 있어서는 무기력하기만 하며 자신의 존재가 가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이 주인공을 극단적으로 소심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母も精一ばいの努力で生きているのだろうが、父もまた、一生懸命であった。もと、あまりたくさん書ける小説家では無いのである。極端な小心者なのである。それが公衆の面前に引き出され、へどもどしながら書いているのである。書くのがつらくて、ヤケ酒に救いを求める。ヤケ酒というのは、自分の思っていることを主張できない、もどかしさ、いまいまして飲む酒の事である。いつでも、自分の思っていることをハッキリ主張できるひとは、ヤケ酒なんか飲まない。

(「桜桃」『全集 第9巻』p.356)

어머니도 힘껏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일 테지만 나 또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본디 많이 쓰질 못하는 소설가다. 극단적으로 소심하기만 한 사람이다. 글 쓰는 일이 고통스러워 홧술을 마시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보려 한다. 마음에 있는 말을 분명히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홧술 같은 건 마시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침묵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는 것으로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父>에게 있어 유일한 현실 도피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 사고를 가진 <나>와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와 생활자로서 어느 하나 단정 지을 수 없게, 모호한 전개 방식으로 <예술가로서 생활자 父>의 모습을 위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독자에게는 동정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다.

はっきり言おう。くどくどと、あちこち持ってまわった書き方をしたが、実はこの小説、夫婦喧嘩の小説なのである。

(「桜桃」『全集 第9巻』 p.367)

분명히 말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질질 끌어가며 써왔는데, 터놓고 말해서 이 소설은 우리 부부 싸움 얘기인 것이다.

언쟁싸움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 소설은 부부 싸움 소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서 독자들을 눈속임 하려는 것이다. 부부싸움이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 나오는 <父>는 부인에게 있어서 일방적이며,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 하고 있지만 모순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生きるという事は、たいへんな事だ。あちこちから鎖がからまっていて、少しでも動くと、血が噴き出す。

(「桜桃」『全集 第9巻』 p.360)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여기저기 쇠사슬이 감겨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가 솟아 나온다

삶에 대한 인식에서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여기저기 쇠사슬이 감겨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가 솟아 나온다」라고 할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생각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나>는 피가 솟아나 아무리 아파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한다」고 하는 긍정적 사고 방식과 또 다른 사고 방식의 대립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기

작품인 「新郎」에서의 삶의 인식은 너무나 평화롭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一日一日を、たっぷりと生きて行くより他は無い。明日のことを思い煩うな。明日は明日みずから思い煩わん。きょう一日を、よろこび、努め、人には優しくして暮したい、青空もこのごろは、ばかに綺麗だ。丹を浮べたいくらい綺麗だ。山茶花の花びらは、桜貝。音たてて散っている。こんなに見事な花びらだったかと、ことしはじめて驚いている。何もかも、なつかしいのだ。煙草一本吸うのにも、泣いてみたいぐらいの感謝の念で吸っている。

(「新郎」『全集 第5巻』p.7)

하루하루를 느긋한 마음으로 조바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힘껏 노력하며 살고 싶다. 사람들을 숙부드럽게, 다정한 가슴으로 대하며 살고 싶다.

창공도 요즘은 너무나 아름답다. 파랗게 갠 저 하늘에 배를 띄워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 산다화의 꽃잎은 꽃 조개. 소리내어 지고 있다. 산다화 꽃잎이 그토록 훌륭한 꽃잎이었던가 하고 새삼 놀라며 뉘을 잃고 바라본다. 모든 것이 그림기만 하다. 담배 한 대 피우는 데도 울고 싶을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피우게 된다.

이렇게 중기 작품과 후기 작품이 상반되는 이유는 「桜桃」와 「父」에서 처럼 패전이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桜桃」보여지는 생활자로서의 <父>는 나약함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것은 마음속에 절대자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 할 곳을 찾지 못하여 이리 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父>의 모습인 것이다.

泣いているのはお前だけでない。おれだって、お前に負けず、子供の事は考えている。自分の家庭は大事だと思っている。子供が夜中に、へんな咳一つして

も、きつと眼がさめて、たまらない気持になる。もう少し、ましな家に引越して、お前や子供たちをよろこばせてあげたくてならぬが、しかし、おれには、どうしてもそこまで手が廻らないのだ。これでもう、精一ばいなのだ。おれだって、凶暴な魔物ではない。妻子を見殺しにして平然、というような「度胸」を持ってはいないのだ。配給や登録の事だって、知らないのではない、知るひまが無いのだ。(中略)子供より親が大事、と思いたい。子供よりも、その親のほうが弱いのだ。桜桃が出た。私の家では、子供たちに、ぜいたくなものをたべさせない。子供たちは、桜桃など、見た事も無いかも知れない。食べさせたら、よろこぶだろう。父が、持って帰ったら、よろこぶだろう。蔓を糸でつないで、首にかけると、桜桃は珊瑚の首飾のように見えるだろう。しかし、父は、大皿に盛られた桜桃を、極めてまずそうに食べては種を吐き、食べては種を吐き、食べては種を吐き、そして心の中で虚勢みたいに呟く言葉は、子供より親が大事。

(「桜桃」『全集 第9巻』 p.358)

눈물이 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나 역시 당신 못지 않게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밤중에 아이가 기침만 해도 그때마다 눈이 떠진다. 좀더 나은 집으로 옮겨 당신이나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된다. 나는 흉악한 악마가 아니다. 처자식을 외면하는 그런 ‘배짱’이 나에게는 없다. 배급이니 등록이니 하는 것을 나라고 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알고 지낼 ‘틈’이 없는 것이다.(중략) 자식보다 부모가 소중하다, 자식보다 부모가 약하다. 앵두가 나왔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값비싼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앵두를 구경한 적도 없을지 모른다. 사 주면 좋아하겠지. 아버지가 가지고 돌아가면 신이 날것이다. 열매를 실에 꿰어 목에 걸면 앵두는 산호 목걸이처럼 보일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접시에 가득 담긴 앵두를 아주 맛있는 표정으로 먹고는 씨를 뱉고, 먹고는 씨를 뱉고, 먹고는 씨를 뱉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허세처럼 중얼거린다. 자식보다 부모가 중요하다.

이처럼 부인만큼이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父>의 모습과, 부모가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父>의 대립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구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앵두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식을 떠올리게 되고 먹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며 자식보다 부모가 중요하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그리고는 가져다 주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무 맛없는 표정으로나마 앵두를 먹는다.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모습과, 부모가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모습은 사회의식 속에 때묻어 버린 이기적인 예술가로서의 <父>의 모습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이면서 생활자인 <父>의 주체성은 모호해진다.

진정한 <父>의 역할의 혼동으로 인하여 점점 <父>는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2-3. 「家庭の幸福」에 나타나는 <父>의 에고이즘

이 작품은 1948년8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桜桃」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나>가 이끌어 가는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예술가적 삶의 <나>가 잘 표현 되어 있으며 더욱이 관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기 합리화적인 모습을 이야기 하고 있다.

街頭録音というものである。所謂政府の役人と、所謂民衆とが街頭に於いて互いに意見を述べ合うという趣向である。所謂民衆たちは、ほとんど怒っているような口調で、れいの官僚に食ってかかる。すると、官僚は、妙な笑い声を交えながら、実に幼稚な観念語（たとえば、研究中、ごもつとながらそこを何とか、日本再建、官も民も力を合せ、それはよく心掛けているつもり、民主々義の世の中、まさかそんな極端な、ですから政府は皆さんの御助力を願って、云々）そんな事ばかり言っている。つまり、その官僚ははじめから終わりまで一言も何も言っていないのと同じであった。所謂民衆たちは、いよいよ怒り、舌鋒するどく、その役人に

迫る。役人は、ますますさかんに、れいのいやらしい笑いを発して、厚顔無恥の阿保らしい一般概論をクソていねいに繰りけすばかり。民衆のひとは、とうとう泣き声になって、役人につめ寄る。

(「家庭の幸福」『全集 第9巻』p.366)

가두늑음이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정부의 관료와 이른바 민중이 길거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

이른바 민중은 대부분 화가 난 어조로 관료에게 덤벼든다. 그러면 관료는 야릇한 웃음소리를 섞어 가며, 정말로 유치한 관념어(예를 들어 연구 중,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좀, 일본 재건, 관과 민이 힘을 합쳐 그 점은 꼭 명심할 생각, 민주주의 세상, 설마 그런 극단적인 그러므로 정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고 운운) 그런 말만 늘어 놓는다. 다시 말해 그 관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민중은 점점 화가 나, 날카로운 언변으로 그 과료를 다그친다. 관료는 더더욱 자주, 예의 불쾌한 웃음을 흘리며 후안무치의 바보 같은 일반 개론만 매우 정중하게 되풀이할 뿐. 민중의 한 사람은 마침내 울먹이며, 관료에게 따진다.

관료와 민중이 길거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을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주인공 <나>는 분노 한다. 그것은 그 장면에서 「관료의 악」을 느꼈기 때문이며 관료적이라는 부정적 기풍의 참모습은 바로 가정의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고 주인공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모든 것, 즉 위선과 가식의 세상에 다자이는 스스로 인간실격이 되어 가면서도, 자학적 침몰을 거듭하면서도 저항을 하는 것이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지향이 곧 다자이 문학의 특징이고, 그의 기질적 특성인 것이다.

또 김영관의 논문에 있어서 관료적인 풍토와 인물의 출발점이 왜 가정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며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속에서 주인공 <나>의 모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¹⁹⁾

酒も煙草も、また、おいしい副食物も、いまの日本人にはぜいたくだ、やめろと
言う事になったら、日本に一人もいい芸術家がいなくなります。それだけは私、断
言できます。(中略)そして、あなたの妻子が泣くんだから。ところが、こっちはも
う、仕事のために、ずっと前から妻子を泣かせどおしなんだ。好きで泣かせている
んじゃない。仕事のために、どうしても、そこまで手がまわらないのだ。(中略)私は
社会党の右派でも左派でもなければ、共産黨員でもない。芸術家というものだ。

(「家庭の幸福」『全集 第9巻』p.367)

술도 담배도, 또한 맛있는 간식도 지금의 일본인에게는 사치다. 집위
치위라,하고 하신다면 일본에 좋은 예술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라
질 게요. 그것만은 내가 단언 할 수 있소. (중략)그리고 당신의 처자식
이 슬퍼하니까 말시오. 그런데 이쪽은 일 때문에 훨씬 전부터 계속 처
자식을 울리고 있소. 좋아서 울리는 게 아니요. 일 때문에 아무리 노력
해도 거기까지 신경을 쓸수가 없기 때문이요.(중략)나는 사회당의 우
파도 좌파도 아니며 공산당원도 아니요. 예술가라는 사람이요.

주인공인 <나>는 불결한 속임수가 무엇보다도 싫은 예술가이다. 그러나
<나>는 가정에서도 늘 그러하듯이 다른 곳에서 2,3일간 계속 술을 마시기
만 할 뿐, 가정적인 남자는 결코 아니며, 또한 훌륭한 남편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정부니, 국가니 실로 중요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는 관료
가 전력으로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비가정적인 <나>
는 예술을 위해 처자식을 울리기만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관료적
인 형태를 비판한다. 그렇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 관료적 형태를 지속하
는 관료와 예술을 위해 술과 담배와 맛있는 부식물을 추구하는 비가정적인
나의 행위는 과연 예술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합리화 될 수 있는 문제 일
까? 어디까지나 주인공 <나>스스로의 적극적 행동과 사고, 노력은 제외시
킨 채 <나>는 응석을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상반 하는 초기작품에서 예술가로서의 의식강도가 약했던

19) 注 5 p.121

것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何も、言葉が無くなるのだ。私は、ただしゃがんで指でもって砂の上に文字を書いては消し、書いては消し、しているばかりなのだ。何も言えない。何も書けない。けれども、芸術に於いては、ちがうのだ。歯が、ぼろぼろに欠け、背中は曲り、ぜんそくに苦しみながらも、小暗い露路で、一生懸命ヴァイオリンを奏している、かの見るかげもない老翁の辻音楽師を、諸君は、笑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か。私は、自身を、それに近いと思っている。

社会的には、もう最初から私は敗残しているのである。けれども、芸術。それを言うのも亦。実に、てれくさくて、かなわぬのだが、私は瘦けの一念でそいつを究明しようと思う。男子一生の業として、足りる、と私は思っている。辻音楽師には、辻音楽師の王国が在るのだ。

(「鴉」『全集 第3巻』 p.176)

아무말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쓸 수 없다. 그러나 예술에서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빨이 다 빠지고, 등이 구부러지고, 천식으로 고생하면서도 어스름한 골목길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는 늙은 거리의 악사를 보고 당신은 웃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바로 내가 이 늙은 거리의 악사를 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처음부터 나는 실패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예술....., 이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몇쩍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나는 끝까지 이 예술의 본연의 모습을 구명하려 한다. 예술은 남자가 일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거리의 악사에겐 거리의 악사의 왕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초기작품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고 예술가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家庭の幸福」에서 예술가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졌을 뿐 예술가로서의 겸손함이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예술가에 대한 정의도 비정상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우선 <나>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가란 술과 담배, 또 맛있는 부식물은 당연히 예술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좋은 예술가의 필요조건이라

고 말하고 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작품 「鷗」에서는 훌륭한 예술가라고 자신했던 거만한 <나>의 모습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나>가 존재한다.

私は、まじめな顔をして酒を呑む。私はこれまで、何千升、何方升、の酒を呑んだことか。いやだ、いやだ、と思いつつ呑んでいる。私は酒がきらいなのだ。いちどだって、うまい、と思って呑んだことが無い。にがいものだ。呑みたくないのだ。よしたいのだ。私は飲酒というものを、犯罪であると思っている。悪徳にきまっている。けれども、酒は私を助けた。私は、それを忘れていない。私は悪徳のかたまりであるから、つまり、毒を以て毒を制すというかたちになるのかも知れない。酒は、私の発狂を制止してくれた。私の自殺を回避させてくれた。私は酒を呑んで、それほど卑屈な、弱者なのだ。

(「鷗」『全集 第3巻』 p.187)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술을 마신다. 지금까지 수천,수만 병의 술을 마셔왔다. 마시기 싫다, 싫다 하면서도 마시고 있다. 나는 술이 싫은 것이다. 단 한 번인들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신 적이 없다. 씹쓸하기만 하다.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음주를 죄악으로 보고 있다. 악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술은 나를 구제 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악의 덩어리이므로 독을 독으로써 제어하는 형국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술은 내가 발광하려는 것을 제지해 주었다. 내가 자살하려던 것을 막아주었다. 나는 술을 마시곤 정신이 알뜰알뜰해져야만 비로소 친구랑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비굴하고도 약하디 약한 자다.

자신을 약한 존재임을 강조 하고 있고, 패전이후의 모습은 타락하고 퇴폐해져 버린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사회의식을 분명히 비교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이 사온 사치스러운 라디오를 듣다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ふいと、次のような短篇小説のテーマが、思い浮んで来たのである。この小説

には、もはや、あの役人は登場しない。もともとあの役人の身の上も、全く私の病中の空想の所産で、実際の見聞で無いのは勿論であるが、次の短篇小说の主人公もまた、私の幻想の中の人物に過ぎない。……それは、全く幸福な、平和な家庭なんだ。(中略) 彼は、役所に於いては、これまで一つも間違いをし出かさず、模範的な戸籍係りであり、また、細君にとっては模範的な亭主であり、また、老母にとっては模範的な孝行息子であり、さらに、子供たちにとっても、模範的なパパであった。彼は、酒も煙草もやらない。我慢しているのでは無く、ほしくないのだ。細君がそれを全部、闇屋に売って、老母や子供のよろこぶようなものを買う。ケチでは無いのだ。夫も妻も、家庭をたのしくするために、全力を尽しているのだ。(中略) また、大笑い。ああ、早く帰宅の時間が来ればよい。平和な家庭の光を浴びたい。きょうの一日は、ばかに泳い。しめた！帰宅の時間だ。ばたばたと机上の書類を片づける。その時、いきせき切って、ひどくみすばらしい身なりの女が出産とどけを持って彼の窓口に現われる。

「おねがいします。」

「だめですよ。きょうはもう。」

津島はれいの、「苦労を忘れさせるような」にこにこ顔で答え、机の上を綺麗に片づけ、空のお弁当箱を持って立ち上がる。

「お願いします。」

「時計をごらん、時計を。」

津島は上機嫌で言って、その出産とどけを窓口の外に押し返す。

「おねがいします。」

「あしたになさい、ね、あしたに。」

津島の語調は優しくかった。

「きょうでなければ、あたし、困るんです。」

津島は、もう、そこにいなかった。……見すばらしい女の、出産にからむ悲劇。それには、さまざまの形態があるだろう。その女の、死なねばならなかったわけは、それは、私(太宰)にもはっきりわからないけれども、とにかく、その女は、その夜半に玉川上水に飛び込む。新聞の都下版の片隅に小さく出る。身元不明。津島には何の罪も無い。帰宅すべき時間に、帰宅したのだ。どだい、津島は、あの女の事など覚えていない。そうして相変らず、にこにこしながら家庭の幸福に全力を尽している。

(「家庭の幸福」『全集 第9巻』pp.372~376)

문득 다음과 같은 단편소설의 주제가 떠오른 것이다. 이 소설에 더

이상 그 관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본래 그 관리의 신상도 모두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건 물론이지만, 다음 단편 소설의 주인공 또한 내 상상 속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그건 매우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다. (중략) 그는 동사무소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모범적인 호적담당 직원이고, 부인에게 있어서도 모범적인 남편이며, 또한 나이 든 모친에게 있어서는 효심 지극한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나아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모범적인 아빠였다. 그는 술도 담배도 안한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부인도 그것을 모두 ‘야시장’에 팔아 나이든 모친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산다. 구두쇠라서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을 즐겁게 이끌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고 있다. (중략) 또 한바탕 웃음. 아아. 빨리 퇴근 시간이 되면 좋겠다. 평화로운 가정의 빛을 쬔고 싶다. 오늘은 하루가 너무너무 없이 길구나. 끝났다! 퇴근시간이다. 허둥지둥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한다. 그때, 숨을 헐떡거리며 몹시 초라한 웃을 입은 여인이 출생 신고 서류를 가지고 그의 창구 앞에 나타난다.

「부탁합니다.」

「안됩니다. 오늘은 이제.」

쓰시마는 예의있게 「시름을 잊게 하는」 웃는 얼굴로 대답하며 책상 위를 말끔히 정리하고 빈 도시락을 들고 일어난다.

「부탁합니다.」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쓰시마는 기분 좋게 말하고는 그 출생 신고서류를 창구 밖으로 밀어낸다.

「부탁합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요.」

쓰시마 말투는 부드러웠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쓰시마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초라한 여인의 출산에 얽힌 비극. 그것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 여자가 죽어야만 했던 까닭은 그것은 나(다자이)도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은 그 날 밤 다마강 저수지에 몸을 던진다. 신문의 한쪽 구석에 작게 기사가 난다. 신원불명. 쓰시마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퇴근해야 할 시간에 퇴근한 이다. 애당초 쓰시마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정 행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아버지는 평범한 공직자로 부인에게 있어서도 모범적인 남편이며 또한 나 이든 모친에게 있어서는 효심 지극한 모범적 아들이었고 나아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모범적인 아빠였다. 그는 술도 담배도 안 한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본래의 <나>와는 정반대의 이상향의 가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상 속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안의 <나>는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 출산신고를 위해 방문한 여성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러나 그 여성은 그 날 밤 玉川上水에 뛰어들고 신문의 교외판 구석에 작게 실린다. 주인공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한 것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건으로 묻혀졌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에 의해 타인의 상황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기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だいたいこんな筋書の短編小説を、私は病中、眠られぬままに案出してみたのであるが、考えてみると、この主人公の津島修治は、何もことさらに役人で無くてもよさそうである。銀行員だって、医者だってよさそうである。あのへらへら笑いの捌って来る根元は何か。所謂「官僚の悪」の地軸は何か。所謂「官僚的」という気風の風洞は何か。私は、それをたどって行き、家庭のエゴイズム、とでもいうべき陰鬱な観念に突き当たり、そして、とうとう、次のような、おそろしい結論を得たのである。

曰く、家庭の幸福は諸悪の本。

(「家庭の幸福」『全集 第9巻』pp.376)

대략 이런 줄거리의 단편소설을 나는 병중에 잠도 자지 못하고 궁리해 보았다.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인 쓰시마 슈지는 굳이 공무원이 아

니어도 될 것 같다. 은행원이나 의사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 이 소설을 떠오르게 한 것은, 저 관료의 실실거리는 웃음이다. 저 실실거리는 웃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른바 「관료의 악」의 지축은 무엇인가. 이른바 「관료적」이라는 기질의 풍동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더듬어 가다가, 가정의 에고이즘이라고 말해야 할 음울한 관념에 부딪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무서운 결론을 얻어냈다. 가라사대, 가정의 행복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즉, 가정을 위한 선택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기질을 모두 가정을 지키려는 에고이즘에서 출발 한다고 보고 있다. 관료적인 기질에 대한 분노는 <가정의 행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영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료적>이라는 형태, 그 원형, 그 모순이 결국 <가정의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고 결론 지워지고 있지만, 자기의 가정고 행복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지키는 데서 <관료적>인물, <관료적> 사고 방식, <관료적>형태, 행동이 나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술가>인 <나>도 결국 자신의 <예술>을 위해, 자신의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기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면 가정의 불행은 모든 선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일까? <가정의 행복은 모든 악의 근본>이라는 소설적 주장에 결국 모순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 아닐까?²⁰⁾

이는 자신의 예술을 위한 이기주의에 대한 변명이다. 모든 관료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와 맛있는 부식물들은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만약 그런 것을 못한다면 일본에 좋은 예술가는 한 사람도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주인공의 어불성설이며 자기 변명」²¹⁾

20) 注4 p.122

21) 注4 p.158

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기 작품 「鷗」에서는 겸손하며 예술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삶의 척도 역시 다자이에 의한 기준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자이의 의식 또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다자이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진정한 인간의 선과 행복, 나아가 이상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행복은 惡이 아니라 善이며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주인공 <나>의 문제는 자신의 예술을 추구하려는 또 다른 개인주의 형태에서 출발한다. 관료의 가정을 위한 개인적인 이기주의 <나> 주인공의 가정의 행복 추구라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한 여인의 비극은 자신의 예술을 위한 이기주의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며, 자신의 가정의 행복은 곧 타인의 불행과 직결된다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이기주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화 되지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초래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기주의 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전후 가정의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의식으로 인한, 우리라는 것은 이기적인 일본국민을 말하고, 공무원은 일본정부를 지칭하며 죽은 여자는 힘없는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피해자로 밖에 남을 수 없었던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문제로 인한 아버지의 위상과 국민으로서의 피해의식이 낳은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패전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국민을 포함, 다자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크게는 나라의 이기주의를 위하여 희생된 국민, 좁게는 자신의 이기

주의를 위한 가족의 희생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다자이오사무의 후기 작품인 「父」, 「桜桃」, 「家庭の幸福」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의 초기나 중기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나 중기작품에서는 <가정>에 대하여 애착을 보이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하는 모습을 엿보인다. 그러나 패전 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후기의 작품에서는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으나 좀처럼 현실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후기 작품의 경향에 대하여 <가정>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모순적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 구도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에 대한 모순구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父」, 「桜桃」, 「家庭の幸福」의 분석을 통하여 그 양상과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 「父」에서 보이는 다자이에게 있어서의 <義>란, 자기 기준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정한 기준에 범주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義>라는 명분으로 행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과 생이별을 감수하고 놀러 나온 주인공에게 펼쳐지는 향응의 시간들은 그에게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렇지만 이를 버리려 하진 않는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곳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충분히 <義>를 위해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향응은 가정과 현실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닌 지옥 같은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 <父>는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싶어 하는 평범한 가장이길 바라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현실에 괴로워하며 도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피성이 주인공의 외도로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며,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감에 어찌 할 줄을 모르면서도 가정으로는 도저히 되돌아 갈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자이가 자신이 정해놓은 <義>라는 잣대가 흔들리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불안과 중압감으로 만들어진 <父>인 것이다. 이러한 패전 후에 생긴 중압감의 배경이 세상이 아닌 <가정>이라는 협소한 곳으로 옮겨 왔을 뿐, 주인공이 느끼는 고통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父>를 통하여 추구하려던 <義>라는 것은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義> 일 뿐 개인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인 <義> 라고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행동에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즉, 나약해져버린 <父>로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모순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자이의 작품은 언제나 갈등과 고뇌의 연속이다. 이는 사회적인 구조와 다자이 자신과의 대립구조가 자아내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모순에서 오는 혼란과 반숙 정신이 작품 속에 투영 되어, 그의 작품은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강렬하고 적나라한 표현 방식으로 그 대립 구조에 대해 주인공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항상 문제를 던지고 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론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러나 주인공의 메시지는 논리적이거나 순차적이지 않다. 지극히 모순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이른바 모순 속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작품 「桜桃」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주인공들의 언행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필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라는 장벽에서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려는 주인공의 노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강한 반속 정신을 표출해 내고 있다. 즉, 그 안에서 주인공 <나>는 예술가적 모습과 생활자적 모습의 주체성을 놓고 혼동하고 있다. 아버지로서는 가정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만 싶고 도망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항상 생각과 행동은 대립되고 일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것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대립되고 모순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 갈등은 단순한 아버지의 의식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에 의해 지배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가로서 아버지의 본분을 다 하기에는 무능력하며, 사회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예술가로서는 좋은 <나>일지 모르지만 생활자인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최악의 <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만 낳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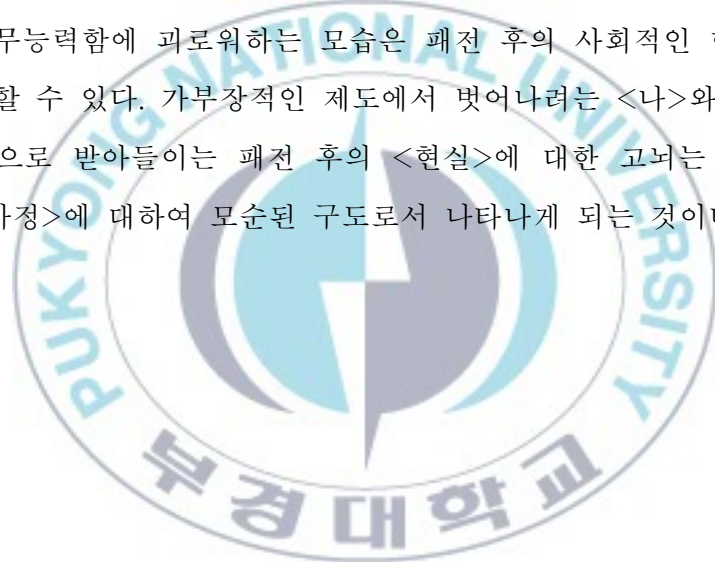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 「家庭の幸福」에서는 관료의 이야기를 빗대어 자신이 예고이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자신의 가정의 행복은 곧 타인의 불행과 직결된다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초래한다. 또 정작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

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이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또한, 그 이전에는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다자이 또한 그 시기에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집필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인하여 전쟁참가라는 현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하게 된다. 이렇게 작품속에서 모순적 구도로 <가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패전이라는 시대상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패전 후의 사회적인 현실과 닮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나>와, 그것을 피폐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패전 후의 <현실>에 대한 고뇌는 작품속에서 비로소 <가정>에 대하여 모순된 구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텍스트

- 太宰治 『太宰治全集 第3巻』 筑摩書房, 1988.10.25
_____ 『太宰治全集 第4巻』 筑摩書房, 1988.12.1
_____ 『太宰治全集 第5巻』 筑摩書房, 1989.1.31
_____ 『太宰治全集 第9巻』 筑摩書房, 1989.5.30
_____ 『太宰治全集 第10巻』 筑摩書房, 1989.6.27

단행본

- 奥野健男 『太宰治の人と文学』 新潮文庫, 1985,8
_____ 『太宰治論』 近代生活社, 1956,9
三好行雄 『太宰治必携』 学灯社, 1980.9
文芸読本 『太宰治』 河出書房新社, 1975,11
森安理文 『太宰治の研究』 新生社, 1968,6
정인문 『다자이오사무 작품연구(1)』 제이엔씨, 2001.5
정인문 『다자이오사무 작품연구(2)』 제이엔씨, 2004.7

잡지

- 鶴谷憲三 「妻・母という<女>」 『日本文学研究』 31卷 1996.1
佐藤郁子 「「桜桃」・「父」—とくにその「義」について」 『太宰治の研究』

新生社, 1968

- 김영관 「다자이오사무 소설의 모순구조 연구 「가정의 행복」과
「앵두」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28권, 한국일어
일문학회, 1996
- _____ 「다자이오사무(太宰治)의 『어머니(母)』 연구」 『일어일문학연
구』, 제35권,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
- 김성희 「太宰治의 女性觀」 『일어일문학』 제14호, 대한일어일문학회,
2000.
- 노영희 「일본 문학 속에 나타난 ‘家[이에,집]와 아버지」, 『동대논총』
제26권, 동덕여자대학, 1996.
- 유승창 「전후 민주주의와 일본의 가정이미지 - 블론디를 시점으로」
『일본어문학』, 제38권, 일본어문학회, 2008.
- 전봉이 「다자이 오사무 (太宰治) 신랑 (新郎) 론-전쟁과 성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3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9
- 이재석 「다자이 오사무 (太宰治), 체념의 1945년 국민에서 생활인으로
그리고 인생의 내면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30권,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
- _____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전기와 중기의 작품변화 고찰」
『일본근대문학산책』,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본
근대문학회, 1996
- 이기섭 「다자이오사무의 자살과 문학」 『일본어문학회』, 제30권, 일본어문학회,
2005.8
- 박영준 태재치(太宰治)와 기독교(基督教)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34권, 한국
일본학회, 1995
- 정인문 太宰治 『人間失格』論 『동아교육논총』, 제27권,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2001